

2024년 전망과 경기도 복지 대응 전략

목차

- 2024년 전망
- 경기도 복지 대응 전략
- 정책 제언

2024년은 국정과 도정의 후반기로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

- ▶ 대통령과 경기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미래'를 강조
 -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3대 구조 개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
 - 도정 안정화에 주력한 전반기를 기반으로 돌봄 등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성과를 체감·확산하여 대한민국 변화 견인
- ▶ 갈림길의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세로 돌리기 위한 준비의 시점
 - 한국경제 정점론(피크 코리아)을 벗어나기 위한 제도 개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출발은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는 사회안전망에 관한 것
 - 위기에 취약한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기술과 연계하여 제공,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경제' 실현

경기도민의 삶을 구석구석 돌보는 360° 복지 추진

- ▶ 복지 틈새를 메우고, 생애단계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경제 추진
 -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틈새없이 메워 주며 생애단계별로 달라지는 필요를 끊임없이 연결해 주는 복지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군을 지원하고 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간병서비스와 노인케어 사업 추진
 - 누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표준화와 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해 질을 높이고 개별화된 돌봄욕구를 서비스 개발로 연결하는 돌봄경제를 구축하는 한편, 360°돌봄을 돌봄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 고려
- ▶ 기술기반 돌봄서비스체계 구축하여 24시간 종일복지 구현
 -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지속되어야 하는 돌봄 특성을 보완하고, 대면을 꺼려하는 대상자는 생성형 AI를 통해 상담하는 등 시간의 사각지대 해소
 - 돌봄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복지기술센터 설치와 복지기술박람회 개최

정책 제언

- ▶ 민선8기 시즈2 복지정책이 틈새없이 잘 추진되기 위해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 및 새로운 아젠다 발굴을 위한 공론장 운영
- ▶ 시기술을 도민 돌봄에 적용하여 신규 사업 추진하는 문샷 싱킹 일상화



ISSN 2982-5547

2024년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로 민선 8기
후반기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

2024년은 국정(國政)과 도정(道政)의 절반이 지나는 시기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 ▶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국내외적으로 총선과 대선 등 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는 해(年)로, 청룡의 기운으로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대
 - 60간지(干支) 중 41번째인 갑진(甲辰)은 푸른 용을 의미하며, 용은 상서롭고 동방(東方)¹⁾의 상징이자 수호신으로 생명의 원천이자 신성함으로 추앙받아 왕의 상징으로 투영
 - 역사적으로 갑진년에 우리 운명과 세계의 역사를 바꾼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²⁾, 2024년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이 있어 사회적 변화 기대
- ▶ 국정 및 도정의 하반기 설계를 위해 정치·경제·사회 전망을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정립
 - 2024년 1월 1일 발표된 대통령과 지사 등 각계의 신년사와 국내외 전망과 키워드 등을 토대로 2024년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전망
 - 2023년 12월 21일 확정된 2024년 예산,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등의 자료를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정책 추진 언급³⁾

- ▶ 집권 3년 차 국정의 방향을 '경제'와 '민생'으로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

- 신년사는 지난 한 해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 보고 금년의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내용으로 올 신년사에서 '국민'이 28번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19번, '개혁' 11번, '민생' 9번 순으로 언급하여 경제와 민생을 강조
 - '민생'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핵심 용어로 들어갔고, 경제는 지난해(11차례)보다 8번 더 강조⁴⁾

〈그림 1〉 2024년尹대통령 신년사 키워드



자료 : 뉴스 기사(24.1.1). '尹대통령 신년사 키워드 그림 참조함

- ▶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

-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구조 개혁과 문제의 원인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경험을 토대로 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 추진 강조

1) 동방은 오행에서 나무와 불을 의미하여 청룡은 비와 구름, 바람, 천둥, 번개 등 날씨와 기후, 식물을 다스린다고 여겨져 삶을 지탱하는 농업에 절대적인 수호신으로 추앙받음(중부일보, 2024.1.2. '2024 용의 해' 기사 갈무리)
 2) 직전 갑진년인 1964년에는 한국의 월남전 파병안이 통과되었고, 1904년은 조선에 대한 지배적 권리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 간 전쟁이 발발, 국권침탈이 가속화된 비극의 해였고, 1604년은 임진왜란 종전 5년 후로 3천명의 포로송환이 이뤄졌으며 1484년에는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중부일보, 2024.1.2. '2024 용의 해' 기사)
 3) 경향신문 기사(24.1.1). [전문] 윤대통령, 신년사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4) 뉴스1 기사(24.1.1). '尹대통령 신년사 키워드'

경기도지사는
신년사에서 '민생'과
'미래'를 언급,
재계(財界)는 '성장'을
강조

2024년 민선 8기 경기도정 시즌2는 미래와 민생에 중점

- ▶ RE100과 인구 정책 등 미래 정책에 집중하면서 도정 안정화에 주력한 전반기를 기반으로 2024년 적극재정으로 지역 경기 부양
 -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 RE100 비전 선포, 기회소득 추진 등 도정의 방향을 정하고 안정화에 집중한 민선8기 전반기를 시즌1로 정의
 - 경기도는 2024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6.8% 증액한 36조1210억 원을 편성하여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정부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 ▶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을 시즌2로 정의하고 돌봄과 교통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과의 속도를 높여 도민 체감도 제고 강조
 - 2024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60° 돌봄, 대중교통 비용을 환급해주는 더(The)경기패스 시행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교통문제 해결에 집중⁵⁾
 - 도민과 함께 정책추진의 속도를 더하여 성과를 체감하고 경기도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힘

10대 그룹 신년사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이 가장 많이 등장⁶⁾

- ▶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 등 전기·전자·IT 관련 업종이 점차 회복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을 강조한 기업이 많았고, '위기'는 19위
 -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10대 그룹의 2024년 신년사에 쓰인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성장'이 38회로 가장 많이 등장
 - '글로벌(세계)'과 '미래'가 대기업 신년사에 총 35회 사용되며 공동 2위에 올랐는데,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빈곤, 질병 등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미래 담보가 가능하다는 내용
- ▶ 기업연합체인 한경협⁷⁾은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경제·산업정책과 글로벌 경제상황 불안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과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 역설⁸⁾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및 외국 우수인력 유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
 -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하며 규제 완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요청

5) 대중교통 월 21회 이상 이용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4%)해주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 민생 대책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대상도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됨.

6) 디지털조선일보(24.1.5). '국내 10대 그룹의 신년사 핵심 키워드는 '성장'... 경기기대감 높아', 국제신문 기사(24.1.3). '10대그룹 신년사 핵심키워드는 '위기' 아닌 '성장', 뉴시스 기사(24.1.3). '10대 그룹 신년사, '성장' 최다 언급...경기 회복 기대↑' 자료 참조

7)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23년 9월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함

8) 더팩트 기사(23.12.28). '유진 한경협 회장 "전경련 역사 넘어 본격 출발하는 원년...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지디넷코리아 기사(23.12.29). '유진 한경협 회장 "새해 心想事成정신으로 뛰겠다"' 자료 참조

전문가들은 ‘갈림길’과 ‘돌봄경제’를 키워드로 선택, 한국정점론을 불식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심 가져야 함

전문가들은 경제 키워드로 갈림길, 사회 키워드는 돌봄을 선택

- ▶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경제 키워드는 용문점액(龍門點額)⁹⁾, 기로, 변곡점 등으로 한국경제가 ‘갈림길’에 설 것으로 예상¹⁰⁾
 - 국내 경제·경영전문가들은 2024년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해내거나 중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서 중장기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진단¹¹⁾
 - 한국 경기 추세에 대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국 통화긴축 장기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수출경쟁 심화 및 가계부채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도약’ 가능
- ▶ 매년 트렌드 10가지를 키워드로 엮어 발표하는 <트렌드 코리아>¹²⁾에 따르면, 2024년 10대 트렌드¹³⁾ 중 ‘돌봄경제’(Care Economy)를 제시
 - 돌봄경제는 고령사회와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전통적인 복지 차원을 넘어 돌봄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¹⁴⁾

‘성장 지속’이라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점

- ▶ 지난 해 11월 일본의 한 경제지가 한국 경제는 이미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이른바 ‘한국경제 정점론(피크코리아, Peak Korea)’을 주장
 - 경제지 머니1은 한국경제는 이미 내리막길로 들어서 G9에 진입할 수도 없고 2050년에는 15위 이하로 쳐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국내총생산(GDP)이 한때 연간 GDP 성장률이 13%를 넘겼지만 이제 1%대에 들어섰다는 것¹⁵⁾
 - 성장을 둔화의 근본적 원인은 인구 절벽이라고 불릴 만큼의 급속한 인구 감소 때문이며, 생산성의 한 축인 노동생산성 감소는 ‘피크 차이나’도 직면한 공통의 문제
 - 출산(인구감소)은 짧은 시간 내에 변화와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빠른 대응과 이전과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 고령화된 인구를 노동시장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안 마련과 연령 조정 등 급진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9) 물고기가 급류를 타고 중국 황하의 ‘용문’을 넘으면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가지만, 넘지 못하면 문턱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에 상처가 난 채 하루로 떠나려간다는 뜻

10) 세계일보 기사(23.12.21). ‘2024년 키워드 ‘용문점액’... “韓 경제 갈림길에 선다”

11) 전문가들이 전망한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2.1% 수준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균(2.7%)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12)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매해 그 해의 트렌드를 정리한 <트렌드 코리아>시리즈를 2008년부터 출간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음 해 한 해의 전망을 담은 책이며, 해당 전망을 위해 만든 신조어들이 실린다(나무위키)

13) 2024년 10대 트렌드로 시간의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의미의 ‘분초사회’, 외모·학력·자산·직업·집안·성격 등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육각형 인간’, 경험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파밍’, 가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남성상인 ‘요즘 남편, 없던 아빠’, 기업과 개인 모두 본업 외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스핀오프 프로젝트’, 자신의 취향과 비슷한 사람의 소비를 따라 하는 ‘디토 소비’, 공급·유통업자들이 개인 맞춤형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버라이어티 전략’, 대중교통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역이 물 같은 흐름이 중요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리퀴드폴리탄(liquid politan)’, 생성형 AI가 인간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us)’ 등이 있음(<https://brunch.co.kr/@brunch3ppq/181>)

14)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한 키워드는 책이 출간된 해당 연도의 소비 트렌드를 총 결산 및 정리하고 있어 미래 전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으나, 축적 및 지속된 경향을 키워드로 묶은 것인 만큼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

15) 실제 우리 경제는 70년대 13%를 상회(73년 14.9%, 76년 13.2%)하였으나, 80년대에 연평균 8.88%에서 90년대 7.30%, 2000년대 4.92%, 2010년대 3.33%, 2020년대는 1.9%로 급락

경제흐름을 우상향으로 바꾸기 위해 경기도는 기술과 결합한 서비스 중심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

▶ 경제 등 흐름의 방향을 우상향으로 바꾸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는 사회안전망에서부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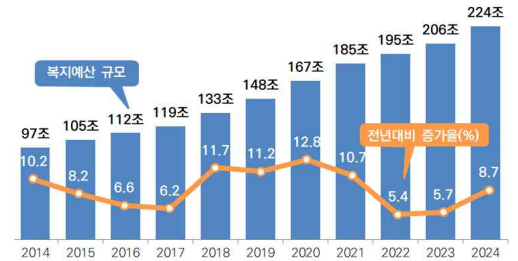
-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021년을 정점으로 하향하고 있고,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부문¹⁶⁾ 예산의 증가율도 2021년부터 감소

〈그림 2〉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각년도)
주 : 2024년은 한국은행 전망

〈그림 3〉 사회복지 예산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각년도 예산
주 : 2024년은 예산안

- 산업화 시기의 고도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화시대를 지나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며, 그 범위는 산업과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등 전반으로 확산하여 미래를 준비
 - 영국은 이미 1970년대 말에 ‘피크 브리티시’ 현상을 겪으며 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출발은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는 사회안전망에 관한 것¹⁷⁾

‘기술’과 연계한 투자 복지 정책 추진으로 성장의 토대 마련

▶ 경기 침체 상황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복지정책의 우선적 고려 대상이며, 정부는 공공부조 등을 통해 보장

- 2024년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

▶ 경기도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방향적인 시혜가 아닌 기술을 활용한 양방향의 거래가 이뤄지는 투자 복지 정책으로 전환

- 도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 정책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누리는 기회 제공
- 돌봄은 누구나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가족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기술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술과 결합된 돌봄사례를 산업으로 연결·투자하고, 돌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서비스 생산자로 참여하여 양방향의 돌봄거래가 되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등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유도

16) 사회복지 부문은 총 9개 하위항목(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 보훈,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주택, 취약계층지원)으로 구성되어 보건복지부 예산과 차이가 있음

17) 이수희 영국 켄트대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최근 선진국으로 들어간 마당에 저성장 시대는 불가피하다”며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면 저출산과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23.12.25, “사회안전망 부족하면 피크 코리아 극복 어려워” 기사 참조함)

II. 경기도 복지 대응 전략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틈새 없이 메워, 삶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360° 복지 추진

경기도민의 삶을 구석구석 돌보는 360° 복지 추진

- ▶ 민선8기 하반기 복지정책은 기존의 복지 틈새를 메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360° 복지' 추진
 -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틈새 없이 메워 주며 생애 단계별로 달라지는 필요를 끊임없이 연결해주는 복지
 - 360도는 둥근 원(圓)의 각도이고 처음과 끝이 없이 연결되어 빈 곳(틈새)이 없고 어떤 개수로 나누든 동일한 크기로 나눌 수 있고, 어디서 보아도 모양이 똑같아 가장 조화로운 도형
 - 수혜자와 공급자가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수혜자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양방향의 복지가 가능
 -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디에도 빈 곳이 없는 복지가 가능
- ▶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삶의 전반을 돌보는 서비스를 생애 단계별로 기술과 결합, 제공하여 경제적 효과를 높여 지속가능한 복지 보장
 - 급속한 기술과 기후변화, 달라진 인구 구조와 가족의 역할 등 전방위적 사회변화에 맞춰 취약계층 중심에서 복지가 필요한 도민 누구나로 대상 확대
 -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돌봄이 필요하며, 그 수요는 다양하고 구체적이므로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생산, 분배, 소비하는 돌봄경제체계를 구축
 - 감소하는 인구를 고려하고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복지와 결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산업에 투자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 ▶ 대응 전략은 ①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대응(population centered policy) ② 돌봄경제 구축(care economy) ③ 기술과 연계한 복지 혁신(24시간 복지)
 -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의 문제를 노인과 기술(AI)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돌봄의 문제를 산업으로 연결하여 소모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제시

1.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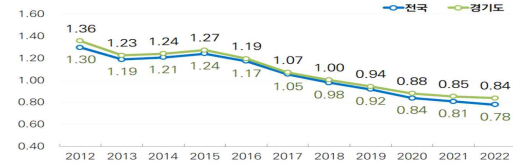
- ▶ 경기도는 민선 8기 시작부터 낮은 출산율에 대응한 인구문제를 전체 부서가 매달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
 - 1990년대 출산율이 1명대로 떨어진 후 2015년 약간 반등하였으나 2019년에는 1명 이하로 떨어져 2022년 0.78명까지 하락하였고, 경기도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 나 전국에 비해 출산율이 약간 상회한 수준

II. 경기도 복지 대응 전략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를 발굴, 시군 상황에 맞게 추진하여 도민 체감도 제고

- 내달 통계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을 발표할 예정인데, 0.7명대 초반 또는 0.6명대 후반까지 하락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이 현 수준 (0.7명)으로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 2020년 정점(5184만 명)을 지나 2033년 5000만명선(4981만 명)이 붕괴되고, 2041년에는 50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8)
- 막연한 대책에 예산만 쏟아붓는 실효성이 없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당사자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

〈그림 4〉 2012~2022년 합계출산율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 2024년 전체 노인인구 천만 명 돌파¹⁹⁾에 대비, 경기도는 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노인복지 분야를 찾아내어 시군별 상황에 맞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체감도 제고
-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²⁰⁾되면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²¹⁾에 대응하여 노인의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과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그림 5〉 2024년 달라지는 노인일자리



〈그림 6〉 2024년 달라지는 노인소득과 돌봄서비스



자료(좌·우) : 기획재정부.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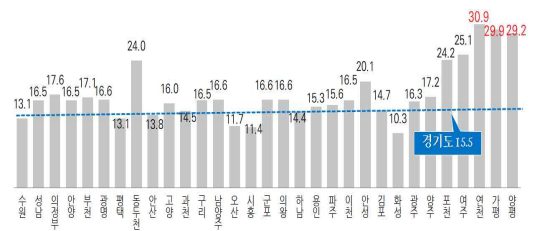
- 전국에 비해 경기도 노인인구 비중은 낮으나, 노인인구 수가 가장 많고 31개 시군 간 노인인구 비율 격차가 커서, 시군별 상황에 맞고 의료·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별로 체감도 높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집중

〈그림 7〉 전국 및 경기도 노인인구 비율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각년도), 인구 동향(12월 기준, 2023년은 11월 기준)

〈그림 8〉 경기도 및 31개 시군 노인인구 비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 2023년 11월 기준 인구

18) 매일경제 기사(24.1.3). '5000만 인구붕괴' 19년 늦출 해법은...연간 30만명 긴급수혈 분

19) 노인 인구 추이 : 22년 901.8만 명 → 23년 950만 명 → 24년 1,000.8만 명(<https://jtwins-family.tistory.com/173>)

20) 경기도는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17.1%로 예측되며, 2030년 21.9%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인구추계자료)

21) 기초수급자 중 노인인구 비중 : 19년 37.4% → 20년 38.1% → 21년 43.2% → 22년 45.3%(<https://jtwins-family.tistory.com/173>)

II. 경기도 복지 대응 전략

노인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시군이
추진하도록 의료와
주거 중심으로 지원

(1)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노인들은 일상적 돌봄 외에도 건강 지원을 비롯한 포괄적 돌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설이나 병원 이용은 비용부담이 커서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²²⁾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²³⁾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재하고 시군 단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서비스(주거, 의료 등)로 인해 통합적 제공이 곤란한 문제 노정
- 경기도의 2023년 보건 의료 및 복지, 주거 등의 6개 분야²⁴⁾의 사업예산은 2조 4600억 원²⁵⁾에 달하므로 사업예산을 총괄하고 분절과 중복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거나 의료서비스를 시군과 연계하는 역할 수행
 - 경기도에 설치된 6개 독립의료원별로 포괄할 수 있는 시군범위를 정하여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 보건소와 연계
 -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기존 주거복지서비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노인 대상 주택개보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고령자공간복지모델사업²⁶⁾을 신속하게 추진

〈표 1〉 고령자 공간복지 모델 프로그램안

영역	프로그램
돌봄	입주민 참여형 주민케어(입주민→고령자), 청년봉사(대학생, 청년→고령자)
의료	건강상담, 의료기관 알선, 외부 방문진료, 건강운동 프로그램 등
일자리	사회공헌, 재취업 교육, 주민카페, 식사제공, 수제 생상품 제조 및 판매

자료: 경기주택도시공사 내부자료

-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사업과 경기도 사업, 시군 자체사업의 사각지대를 찾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경기복지재단(2023)은 고난이군 노인·장애인에 대한 보건, 의료, 주거, 영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존 돌봄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

(2) 여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노인갭이어 사업 추진²⁷⁾

- 완전히 은퇴를 하면서 삶의 방향을 잃을 수 있는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리하는 노인 갭이어를 통해 여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기회 제공
 - 업무와 일상, 그리고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2018년 기준, 72.3세 /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투자과연금리포트』 54호) 후 상실감이나 목적 상실, 더 나아가 삶의 의욕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함

22)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의거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

23)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이후 75세 노인에 한정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24) 6개 분야는 보건 및 의료, 복지 및 돌봄, 노인주택 및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일자리, 기타(인력 지원, 행정관리 등)

25) 경기복지재단(2023).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구축 및 역할 정립 방안』. 위탁보고서 2023-1

26) 제3기 선도사업과 같은 신규 주택단지나 구도심의 경우 빈집을 활용하여 의료, 돌봄, 일자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임(경기복지재단, 전계서)

27) 노인 갭이어 내용은 김희연·조해진(2023). 『경기도 노인 갭이어 사업 설계(안)』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II. 경기도 복지 대응 전략

노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리할 '갭이어' 사업을 생애주기별로 추진하고

도민의 일상회복과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간병사업 추진

- 그동안의 삶을 복기하고 여생(餘生)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할 기회 제공
 - 사업 대상 연령은 70~74세로, 75세 이후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우울 등 부정적 경험이 높아지기 시작함을 고려(노인 인식 연령 72.1세, 노동시장 완전 퇴직 연령 72.3세를 고려)
 - 노인의 건강, 안전 등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갭이어 활동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하며, 노인 단독 외에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참여
- 인생 전환기마다 삶의 방향을 찾는 생애주기별 갭이어 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도민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기회 제공
 -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갭이어는 2023년부터 추진되었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제2의 직업을 탐색하는 중장년 시기에도 도입 예정

<그림 9> 생애주기별 갭이어 프로그램



자료 : 김희연·조해진(2023). 『경기도 노인갭이어 사업 설계(안)』. 복지이슈 FOCUS 2023-16, 경기복지재단

(3) 경기도형 간병 사업 추진

- 장시간 간병 및 고비용 등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간병 특성을 고려한 공공 간병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의 일상 회복과 자신의 삶에 충실할 기회 제공
 -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선정,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예산이 85억 원에 불과
 - 공공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고, 요양병원 입원 노인 10명 가운데 계속 병원에 있고 싶다는 답변은 1명뿐으로 간병 사업 방향은 재택간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
- 간병인 지원 : 도립의료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100%까지 상향²⁸⁾하고, 간병교육을 받은 재활지원인력을 민간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파견, 가족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족간병 휴가제 도입 등
-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애말기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의 간병비를 지원하여 청년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 긴급하게 발생한 간병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형 긴급돌봄 지원 항목에 간병비를 포함하여 일시적 위기 상황 지원

28) 경기도립의료원의 현재 운영률 31%를 2026년까지 45%로 상향하는 공약을 2024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2030년까지 운영률 100%(1,204병상) 달성을 목표로 한 사업 추진

II. 경기도 복지 대응 전략

전생애를 포괄하는 돌봄서비스를 경제로 연결하는 경기도 '돌봄경제' 체계 구축

2. 전생애를 포괄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경제체계 구축

- ▶ 돌봄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으로, 개념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높이는 밑거름
 - 돌봄은 누군가를 직접 보살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심리적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일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차원의 활동이자 역량(The Care Collective, 2021²⁹⁾)
 -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따르면, 돌봄은 과거 신체적 돌봄에서 정서적 돌봄을 넘어 관계적 돌봄으로 개념이 확대되었고, 돌봄의 대상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넘어 성별과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
 -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돌봄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이고, 돌봄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순환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제고
- ▶ 노인 인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줄어든 자녀에 대한 양질의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증가하면서 돌봄경제로 성장
 - 돌봄경제는 돌봄을 통해 복지를 충족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모두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의 질적 향상,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
 - 건강과 복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 외, 신체장애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및 임산부, 정신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돌봄 욕구를 가진 돌봄 수요를 추정한 결과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0.4%에 해당하는 548.3만 명으로 산출(김용익, 2020)³⁰⁾되어 산업 수요는 충분
 - 돌봄대상이 기존의 노인에서 청년과 중장년(이혼, 미혼으로 중장년이 된 가구)으로 확대되면서 돌봄서비스 다양화 요구(신체 돌봄에서 심리 돌봄 등)
 - 돌봄이 자립과 재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므로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관리,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 등 돌봄경제체계 구축 가능

(1) 돌봄 공공성 강화

- 공공성은 연령, 소득, 가족 상황 등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정 지원 확대와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보장
 - 돌봄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현재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와 시군 예산으로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환
 - 서비스 내용, 절차, 기준 등을 표준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균질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대상자별 돌봄 수요를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매니지먼트 강화

29) The Care Collective(2021), 『돌봄선언-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역, 니케북스.
 30) 김용익(2020),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배경과 패러다임", 배지영(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반연구』,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II. 경기도 복지 대응 전략

‘돌봄경제’ 구축의
가능성을 ‘360°
돌봄’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자원 확대와
질담보 등 공공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
공급자를 늘려 시장을
형성하는 노력 강화

- 돌봄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이므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돌봄제공인력을 표준임금제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2) 돌봄산업 육성

- 돌봄은 복지,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돌봄 욕구 역시 다면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 관련 다양한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이 가능
 - 2021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77개이고 충북이 34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21개로 중간 수준(김희연 외, 2021)³¹⁾에 불과하여 서비스 개발 여력 충분
 -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 법률, 음식, 정보 기술 등의 서비스를 경기도형 생활돌봄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관련 서비스 개발, 제공
- 돌봄서비스에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돌봄기술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으로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 인공지능을 노인과 장애인 돌봄에 활용하거나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은 치매 예방, 자살 예방, 재활치료 등에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아름채노인복지관의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중부일보, 23.11.13일자 기사)

- 벽면 또는 바닥면의 화면과 센서를 통해 농구, 야구, 양궁 등 스포츠와 풍선 터뜨리기, 드럼연주, 폭죽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며 인지 및 신체 기능 증진을 도모
- 단순히 스마트 기기(IT) 사용법을 넘어서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도모

(3) 360°돌봄사업을 돌봄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

- 올 1월부터 ‘360°돌봄’ 정책을 추진, 1천400만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언제나 돌봄’,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을 포함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도모
 -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 가능하며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
 - ‘언제나 돌봄’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24~48개월 아동을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맡기는 가정에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
 - ‘어디나 돌봄’ 사업은 야간과 휴일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
- 누구나 돌봄의 기존 2개의 확대형 서비스 외에 도민 공모 등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를 발굴, 관련 공급자를 늘려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 창출 도모
 - 다양한 서비스 발굴은 인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로 연결
- 돌봄에 기술, 예를 들면 사람을 돌보는 로봇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발굴, 신성장동력으로 성장 도모

31) 김희연·김영수(2021). 『생활복지서비스 확장 가능성 탐색』, 복지이슈FOCUS 2021-16, 경기복지재단

II. 경기도 복지 대응 전략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수요를 기술과 접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AI를 통한 24시간 서비스 제공으로 부족한 인력 보완 및 24시간 종일 복지 실현

3. 기술기반 서비스로 24시간 종일 복지 구현

▶ 복잡·다양해지는 복지 수요를 기술과 접목하여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기회로 활용

- 노인인구가 늘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생활 기술'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
-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산업은 시장 규모가 '20 72조 원에서 '30 168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³²⁾이고, 분야도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운동·재활서비스, 소셜 로봇, 노인성질환 측정기기 등 자립생활서비스에 ICT기술을 접목한 영역으로 확대
- 기대수명 증가로 돌봄 대상자는 늘고 있으나 출생아 감소, 특히 농촌의 인력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돌봄로봇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인력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
- 삼성전자는 노인 운동을 돕는 '시니어 케어' 특화 로봇인 'EX1'을 준비 중에 있고, 재활로봇 전문기업 엔젤로보틱스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과 보행 재활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 등을 개발 중이며, 위로보틱스는 일반인들도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초경량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웜(WIM)'을 선보일 계획³³⁾

▶ 안부를 묻거나 말벗 역할을 하고 복약지도와 낙상 등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AI기술은 이미 상용화

-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로바케어콜'은 최대 규모인 AI를 기반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국내 최초 AI 전화 돌봄 서비스로 전국 80개 지역 지자체 1만 5,000명이 이 기술을 이용
- 고령화 시대 홀로 계신 어르신 약자들에게 훌륭한 말벗과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AI 반려 로봇 '부모사랑 효돌'은 경기도내 시군에서 시범사업 중

▶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지속되어야 하는 돌봄 특성을 보완하고 대면을 꺼려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 서비스 전달의 혁신 도모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로봇을 보내 돌봄인력의 신체적 어려움과 재정적 부담의 문제를 완화
- 심리적 고충이나 채무 등 민감 내용으로 대면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적인 상황에 생성형 AI를 통해 24시간 상담하도록 하여 시간의 사각지대 해소

(1) 복지기술 생태계 조성 : 복지기술센터 설치

-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은 필요성은 크지만 구매력 등 경제성이 낮아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저조한 상황으로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
- 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 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술이 도민에게 전달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기술 생태계 조성

32) 경희대학교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https://blog.naver.com/mahanaim0702/222891838947>)

33) 동아일보 기사(2024.1.3.). 기술과 플랫폼을 축으로 성장하는 '돌봄경제'

II. 경기도 복지 대응 전략

높은 필요성에 비해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여 복지기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360°돌봄과 연계한 복지기술박람회 개최 등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사업 추진

-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기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의 신성장산업으로 유도
 - 경기도는 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을 지원하는 기관,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조달청, 특허청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의 복지기술 개발과 참여를 독려
- 복지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개발과 제품 인증,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인 복지기술센터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³⁴⁾에 설치

(2) 복지기술 박람회 개최 : 360° 돌봄과 연계

- 복지기술 확산과 도민의 인식 제고, 제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복지기술을 산업으로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혁신 도모
- 국내외에서 IT 기술을 복지나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다양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대부분 취약계층 중심
 -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센덱스((SENDEX, Senior & People with Disabilities Expo)가 매년 개최되었으나 2020년과 2021년 코로나와 수익성 문제로 중단되었고, 2022년 동아전람을 통해 규모가 축소되어 개최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서울시가 2023년에 처음 개최하여 50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홍보와 투자유치, 시민 체험 등을 진행
 - RECARE 재활복지박람회는 국내 최초의 재활, 복지 전문박람회로 7조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국가의 관심 촉구를 위해 RECARE조직위원회가 2022년 한 해 개최
 - 오사카 장애인, 실버용품, 복지기기는 1995년에 시작한 이후 헬스케어, 의료케어, 간호케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박람회 중 하나로 일본의 의료산업을 선도
- 360°돌봄은 누구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도민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삶 추구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지향하는 박람회 개최
 - 장애의 유무,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함을 추구하므로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 모든 도민의 참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젊은이 등이 직면한 문제를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도민 통합에 기여
- 청년 등 일반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에 초점을 둔 복지기술박람회를 개최하여 유능한 젊은이가 복지분야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³⁵⁾는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데, 2024년 키워드는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기술로 이를 참고한 경기도 복지기술 박람회 개최
 -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생성형 AI 중심으로 전시 품목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와 채용 상담도 진행하여 청년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베이비부머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AI와 연결된 360°돌봄서비스를 홍보

3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국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다양한 분야 연구를 진행 중이며, 보건 관련 연구는 의료-IT 융합기술 연구실, 의료용 임플란트 융합연구실, 디지털휴먼연구센터(모션캡처와 생체정보, 로봇동작 기술 개발 등으로 복지 연계 시 시너지 기대(김희연·박지영(2023). 『경기도 새로운 패러다임, '기회복지』, 복지이슈 포커스 2023-1, 경기복지재단)

35)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는 매년 1월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가전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가전제품전시회. 1967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러, 첨단 IT 기술이 적용된 각종 가전제품의 최근 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시회(다음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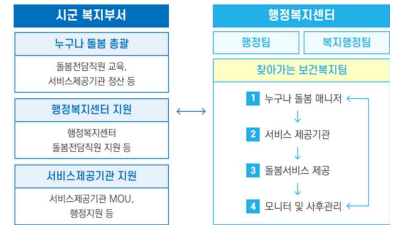
민선8기 핵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미래 복지 이슈 발굴을 위한 공론장 운영 등 혁신적 사고의 일상화

민선8기 시즌2가 틈새없이 잘 추진되기 위해 모니터링 및 확산 체계 구축

▶ 360°돌봄 등 2024년에 추진하는 사업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누구나돌봄 운영체계〉

-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360°돌봄(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이 도민의 일상생활의 질과 삶의 만족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진행 과정 점검



출처: 경기도(2023), 누구나돌봄 매뉴얼

- 누구나 돌봄은 돌봄 매니저를 통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도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객관적 점검을 위한 경기복지재단 등을 통한 외부 평가 추진
- 360°돌봄을 통해 도민의 삶의 개선 등 모니터링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성과 확산의 장을 국내외 전문가 참여하는 국제포럼 등 마련

▶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한 공론장(public sphere)을 운영하여 도민의 신뢰와 미래 복지 선도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도정 지원
 - 사업의 실행력 및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실용적 포럼(가칭 “기회경기복지포럼”)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도정에 기여
- 글로벌 복지 패러다임 변화, 복지 현안에 대한 해외 동향 및 진단 등을 토대로 새로운 복지 및 보건정책 방향 및 아젠다를 개발하여 미래 복지 선도
 - 정부의 복지정책(현안)의 쟁점 및 경기도 영향, 복지와 타 영역간 접목 등 새로운 복지 동향 논의를 통해 선제적인 경기도 대응 및 복지정책 방향 결정에 기여

민선 8기 시즌2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문샷 싱킹 일상화

▶ 급속하게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복지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과 도전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IT기술을 도민 돌봄에 적용하기 위해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문샷 싱킹(moonshoot thinking)³⁶⁾ 일상화
- 처한 복지문제의 본질을 파악(관련 자료를 넓고 깊게 보고)하고 활용가능한 기술과 자원을 탐색(딥 싱킹)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 창의적인 대안 도출

▶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복지에 한정한 사고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집중할 때 혁신 가능

-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보장특구 사업에 기회발전특구 사업의 운영방식을 접목한 ‘기회복지발전특구’ 구상 등 경계와 영역을 넘나드는 생각이 핵심

36) 달을 보기 위해 망원경의 성능을 개선하기 보다는 달에 갈 수 있는 달 탐사선을 만들어 발사(moonshoot)하겠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의미하며, 미국 달 탐사 계획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유래하였으며, 구글(Google)과 아마존(Amazon) 등의 기업이 문샷프로젝트로 혁신을 이뤘음